

건강 칼럼

위암환자 75%가 감염됐다는 ‘헬리코박터균’의 진단과 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 pylori)는 WHO(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급 발암 물질이다. 만성위염, 소화성궤양 등 상부 위장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재균치료를 통해 질병 경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연구에서도 소화성궤양, 위암 등의 예방, 치료, 재발 억제를 위해 재균치료를 효과가 입증됐다.

△성인 2명 중 1명 감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장관에 서식하는 그람음성균이다. 1983년 Warren과 Marshall에 의해 최초로 사람의 위점막 표면에 서식하는 세균임이 발견됐다. 국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는 성인 2명 중 약 1명으로 과거에 비해 감염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만성위염과 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이형성의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암이 점차 표면에서 덩어리 형태로 자라는 장형 위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이 점차 이대로 자라는 미만형 위암과의 관련성도 인정되고 있다. 위암환자의 약 75%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감염경로는 아



조영신
순천향대부속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구강 대 구강 감염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대부분은 가족 내에서 어른이 아이에게 전염시키는 수직 전염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 △감염여부 확인 간단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진단법은 간단하게 혈액이나 변을 검체로 이용하는 비침습적 방법과 내시경을 이용해 위점막을 떼어낸 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침습적 방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내시경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이용한 침습적인 진단법이 많이 활용된다. 그중에서 신속요소분해효소검사가 비교적 진단 방법이 간단하고 검사결과를 빠르게 얻을 수 있어 가장 많이 시행된다.

△소화성궤양 환자, 꼭 재균해야 현재 국내에서는 모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재균하지는 않는다. 소화성궤양, 변연부 B세포 림프종 환자와 조기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에서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며, 재균치료를 강력하게 권고한다.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기준이 완화되면서 소화성궤양, 변연부 B세포 림프종 환자와 조기위암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균치료가 가능해졌다. 검사에 따른 부작용은 보통 크진 않다. 다만 위점막을 생검하는 과정에서 출혈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출혈 유발 약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내시경검사 전에 이러

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3~4종 약제 복용 일반적인 1차 재균치료법은 삼제요법이다. 삼제요법이란 양성자펌프억제제와 아목시실린, 클라리트로마이신 등 항생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일 2회씩 7~14일간 투여한다. 하지만 최근 클라리트로마이신의 내성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1차 재균치료의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1차 재균치료가 실패하면 사용하지 않은 약제들로 2차 치료의 약제를 구성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보통 비스무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제요법이 2차 재균치료로 고려된다.

1차 재균치료가 실패하면 사용하지 않은 약제들로 2차 치료의 약제를 구성해야 하며, 국내에서는 보통 비스무스를 기본으로 하는 사제요법이 2차 재균치료로 고려된다. 재균치료는 2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복용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높은 편이다. 메스꺼움, 가려움증, 설사, 어지러움, 복통 등의 증상이 흔하게 발생하며, 피부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면 지속적인 복용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와 복용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항생제에 의한 간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는 피해야 한다. 우유와 함께 복용 시 흡수 장애가 생길 수가 있어 주의해야 하며, 자극적인 음식도 멀리하는 것이 좋다.

사설

‘전주 가맥 축제’에 거는 기대

‘전주 가맥축제’가 2015년에 생겨 올해로 벌써 10년이 되었다. 삼복 무더위 한여름 밤에 잠도 오지 않을 정도로 후덥지근하고 끈적거리는 저녁에 시원한 맥주 한잔을 마시고 나면 그 청량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시원하여 등골까지 시원하다고 표현하고 싶다.

‘가맥 축제’의 준말이 ‘가맥 축제’이고, ‘가맥 축제’는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 보낼 수 있는 전주만의 독특한 여름 축제이다. 이 가맥 축제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성대하게 열린다. 올해는 특별히 오픈링 공연에서 드론 쇼와 불꽃놀이 축하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구성된 개막식이 열린다고 한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유명 초청 가수 공연과 가맥 클럽 파티, 참여 관객 이벤트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컵으로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릴 수 있어 기대된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흥이 많은 민족이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는 우리 선조들의 노랫말에서 보듯이 원래 잘 노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먹고 노는 문화로 인해 보릿고개를 겪을 정도로 어렵고 못살던 시절에 국민이 더 못살게 된다고 걱정할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노는 문화를 탈피를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더 잘살게 하기 위해 70년대 이후부터 새마을 운동을 주창했다고 알려져 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기구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해 전국민에게 보급했다. 이 노래를 전 국민이 애창곡으

로 부르며 일하기를 주창해 일해온 결과 오늘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 우리 국민도 외국에 견주어 잘 사는 만큼 여유를 즐기며 조금은 나아가면서 삶의 여유를 찾아가며 일해야 생산성도 더 오르고 피곤함도 줄어든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내놓아도 실망한 나라가 되어 5천 년 역사 이래로 우리 세대를 잘 살았던 시대는 이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의심스럽다. 올해 치러지는 가맥 축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곱과 그릇, 접시까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대신 더 청결을 유지해 진행한다고 하니 더 뜻깊은 축제가 될 것 같다.

또한, 축제장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하여 참여업체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가격도 비싸게 받지 않기로 하는 등 각별히 노력한다고 하니 축제가 더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맥 축제를 전주에서 적극 참여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로 키우기 위해 공식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축제가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축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더 기대가 된다. 외국 사례를 TV로 보면 지역민들이 참여하여 만드는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널리 알려져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축제가 된 것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가벼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끼리끼리 모여 한여름의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가맥 축제가 기대되는 이유다. 이번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치러지는 ‘가맥 축제’가 많은 시민의 참여로 아름다운 축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바이든 “대통령직보다 미국이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재선 도전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통령직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며 “개인적 이망보다 민주주의 수호가 먼저”라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 “네타냐후는 전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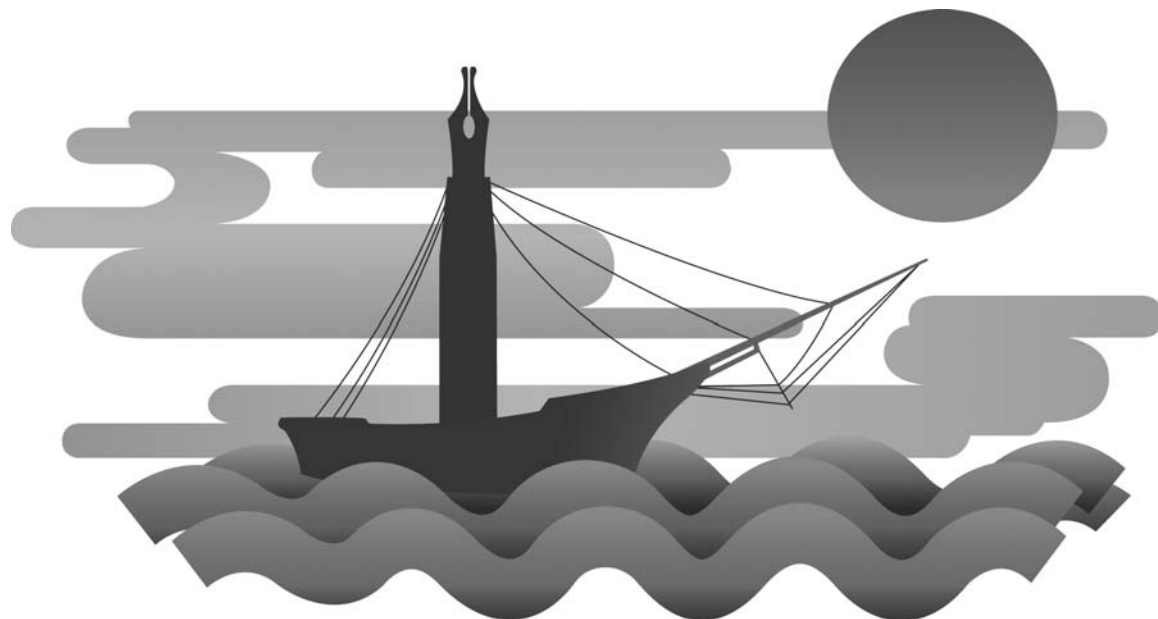
24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연설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네타냐후 형상의 허수아비를 들고 내셔널 몰 인근에서 행진하고 있다. 시위대는 네타냐후 총리를 “전범” “학살 총리”라고 비난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